

# 디지털융복합시대, FTA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전문인력 양성방안

한상옥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 A Study on the Training Plans of SMEs' Origin Management Specialist for the Improvement of FTA Utilization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Sang-Ok Han

Dep. of Trade, College of Business, Chosun University

요 약 FTA와 비즈니스 모델이 상호 얽히고 있는 융복합산업환경에서 최근 FTA는 두 국가의 협정을 넘어 경제권 역간의 소위 Mega FTA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ASEAN, OECD 회원국 대부분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이제는 이러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은 FTA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FTA 원산지관리 역량강화, FTA 지원제도의 운용 내실화,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등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융복합시대 향후 FTA 활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스파게티 볼 효과, 원산지증명, 원산지관리, FTA활용, FTA컨설팅

**Abstract** Recently, FTA may go beyond the agreement of the two countries, and also FTA is tinged aspects of Mega FTA between the economic sphere, under the situation that FTA and the business model are mutually intertwined in convergence industrial environments.

Since South Korea came into force in 52 countries and 15 cases of FTA, South Korea have completed FTA network with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ASEAN and most of OECD member countries, and South Korea is now a critical time to take advantage of the FTA to determine the Sou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This paper examined the previous studies of FTA utilization and analyzed practical usages and problems of SMEs' FTA utilization. Through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Training Plans of SMEs' Origin Management Specialist for the Improvement of FTA Utilization is as follows: to build up th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origin supports, to enrich the origin management competency, to reinforce the operation of supporting system, and to strengthen practical capacity of Origin administrative staff. Based on the results, it is expected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TA utiliz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Spaghetti Bowl Effect, Certificate of Origin, Origin Management, FTA Utilization, FTA Consulting

Received 00 November 2016, Revised 26 November 2016  
Accepted 00 November 2016, Published 28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Sang-Ok, Han(Chosun University)  
Email: happy1555@chosu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서론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FTA와 비즈니스모델이 상호 얽히고 있는 융복합산업환경에서 최근 FTA는 두 국가 간의 협정을 넘어 경제권역간의 소위 Mega FTA의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이후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6년 10월 현재 총 15건, 52국과의 FTA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5%(2014년 기준)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지구촌 전체의 73.5%의 세계 3위의 FTA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1].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2013년 36.1%에서 2016년 67.5%로 증가하게 되었다.

나아가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거대 경제권 역별 FTA 협상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미 글로벌 3대 경제권으로 불리는 미국뿐 아니라, ASEAN, OECD 회원국 대부분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바하호로 FTA는 기업의 생존에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이르렀다.

새로운 FTA가 체결될 때마다 중소기업의 관심은 교역대상 상품에 대한 FTA 적용 품목 및 특혜세율의 수준, 그리고 해당 상품의 원산지기준에 대하여 집중된다. 또한 FTA 협정의 특혜세율과 원산지기준을 분석하면 유망산업의 수출증대나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등 FTA 발효에 따른 경제효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히 FTA 체결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FTA 체결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업들이 실제 활용해 관세를 절감하거나, 경쟁 상대국 기업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활용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FTA 체결에 대한 찬반이 주된 논란이었다면, 최근에는 새롭게 체결된 FTA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 FTA 발효가 자동적으로 수출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는 중

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여야만 FTA는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발효된 FTA의 성패는 결국 이를 활용하는 우리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 등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과 통상에 메가톤급 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후 한·미 FTA 무효화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당장 실행하진 않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같은 무역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큰 국내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는 한·미 FTA 재협상 여부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FTA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FTA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디지털융복합시대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함으로써 FTA활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FTA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FTA의 경제적 효과와 FTA 규정을 중심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들 논문은 모든 기업들이 FTA를 활용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각 FTA 협정마다 원산지규정이 상이하고 복잡하게 얽혀 원산지증명을 어렵게 하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로 인하여 FTA 활용도는 저조한 실정이다[2].

정인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FTA 협상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지만, 기업들의 FTA 활용수준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많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추가 FTA체결보다는 국내 FTA 기반이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3].

도언정·배정환은 대기업은 다양한 전략들 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로 인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4].

박철구·최장우는 기업의 FTA에 대한 이해도, 기업 간의 협력정도,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지원정도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역량 및 원산지정보의 유통에 영향을 미치며, 전문인력양성,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확산, 정보지원제도의 강화, 민간컨설팅시장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5].

김용태·정재완은 중소기업의 FTA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FTA 원산지규정, FTA 특혜관세수준, 정부의 FTA 활용지원, 거래기업의 압력, 거래기업과의 협력관계, FTA 정보획득 역량, FTA활용 관련비용 등으로 분류하여 이들 영향 요인 중 FTA 특혜관세수준, 정부의 FTA활용지원, 거래기업의 압력, 거래기업과의 협력관계, FTA 정보획득 역량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FTA 원산지규정과 FTA 활용 관련비용은 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절차 등에 대한 기업 부담과 FTA 활용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FTA 전담인력 확보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였다[6].

김태인·이준건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성은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지향성(수출비중)과 기업 경쟁력(연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으며, FTA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수출활용도가 높다고 하였다[7].

이창숙은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문제점과 중소기업에는 비용 등을 전가시키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8].

최창범은 기업의 원산지관리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생산공정 이해 능력, 수출품의 HS품목 분류 능력, 원가회계시스템의 이해 및 활용능력, 사후검증 대비 능력의 4가지 실무역량은 모두 기업의 원산지검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가지의 실무역량이 원산지관리 담당자에게 중요한 역량임을 중시하였다[9].

이와 같이 FTA 경제적 효과와 활용제고에 대한 선행

연구는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로 인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내에 보유한 원산지관리 전문인력들의 양과 질이 아직도 부족하고, 관세청이나 중소기업청, 대학에서의 원산지관리 전담자들을 위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 3.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문제점

#### 3.1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

##### 3.1.1 기업 규모별 FTA 활용률

점점 넓어지는 FTA 경제영토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도 FTA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지원하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업 규모별 FTA 활용률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기업 72.8%, 중소기업 51.5%, 2013년 대기업 78.8%, 중소기업 56.5%, 2014년 대기업 80.5%, 중소기업 59.0%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FTA 활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기업은 페루, EFTA, 유럽, 칠레, 미국에서 수출활용률이 높아 대기업의 경우 FTA를 선제적으로 준비, 활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높은 수출 활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세안, 인도, 페루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FTA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1.2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현황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란 국제무역 및 투자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산업분야의 부품 및 원자재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최종재의 조립공정도 담당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다[10].

우리나라는 총수출 중 부품·소재 수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 우리 기업들이 무역 및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과 세계가치사슬(GVC)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가치사슬(Value Chain) 측면에서 보면,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FTA를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기업들은 활용유인이 낮아 원산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1].

직접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률이 61.8%이나, 협력기업의 경우 38.9%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 지원을 통해 FTA 활용을 활성화하고, 협력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 3.1.3 업종별 FTA 활용현황

한·미 FTA의 업종별 활용률은 전 산업 평균 36.8%, 중소기업 업종은 평균 33.7%이며, 업종별로는 축산물 가장 높고, 전기기계, 조립금속 등의 순이다[12].

한·EU FTA의 활용률은 전 산업 평균 55.4%, 중소기업의 업종 평균 57.5%이며, 업종별로는 섬유·의류가 가장 높고, 조립 금속, 전기기계, 생활용품 등의 순이다.

對인도네시아 교역에서 FTA 활용률은 전 산업 평균 55.4%, 중소수출의 업종 평균 57.5%이며, 업종별로는 섬유·의류가 가장 높고, 조립금속, 전기기계, 생활용품 등의 순이다. 對말레이시아 교역에서 FTA 활용률은 전 산업 평균 71.9%, 중소기업의 업종 평균 92.4%로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더 높으며, 고무 및 플라스틱, 조립금속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활용률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對베트남 교역에서 FTA 활용률은 전 산업 평균 79.6%, 중소기업의 업종 평균 81.0%이며, 업종별로는 정밀기계, 임산물 등이 가장 높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전기기계 등은 비교적 낮다.

대체적으로 업종별로 플라스틱·고무, 기계류, 섬유, 화학공업제품의 활용률이 높은 반면, 농림수산물,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등의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이는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등 영세기업이 많은 업종이거나 원산지 기준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3.1.4 협정별 FTA 활용현황

2015년도 FTA 활용률은 수출은 71.3%, 수입은 68.2%으로, 전반적인 교역부진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률은 상승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협정별 FTA 활용률은 수출의 경우 페루(89.8%), EU(86.7%), EFTA(81%), 미국

(78.8%)과의 FTA는 높은 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40.3%), 인도(62.1%)는 낮게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칠레(98.8%), 페루(91.1%) 등 중남미권 국가의 FTA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원자재 등 비교적 원산지 충족이 용이한 1차 산품에 집중된 교역 구조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13].

거대 경제권인 EU, 미국은 수출 활용률이 각각 86.7%, 78.8%, 수입 활용률은 68.5%, 67.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수출 부문에서 FTA 활용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된 결과다. 수입의 경우 수입원재료를 가공·조립·제조한 상품의 경우, FTA 협정에서 특혜 향유를 위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등이 모든 품목에서 가능한 부문은 아닌바, 수출보다 낮은 수입 활용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는 그 산업분야와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3.1.5 FTA 원산지검증 현황

FTA 원산지검증이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FTA 상대국과의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사후검증 빈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기업의 사후검증 대응 필요성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 이어 중국 등 FTA가 잇따라 체결·발효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원산지검증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에 대한 간접검증 건수는 지난 2012년 515건에서 2014년 2892건으로 462%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FTA가 발효된 EU측의 간접검증 현황은 2012년 460건에서 2014년 2822건으로 500%가 넘게 증가하였다. 또 지난 2012년 3월 협정이 발효된 미국의 경우 국내서 한국의 수출물품에 대해 미국측이 직접 확인하는 직접검증 현황만도 지난 2012년 69건에서 2014년 482건으로 600%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물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면서 FTA 특혜를 위한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수입통관단계에서 FTA 특혜 적용 여부를 결

정하고 발효 초기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상 오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여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작성 및 신청요령, 발급 시기 등이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 3.2 FTA 활용의 문제점

### 3.2.1 원산지관리 지원체제의 미흡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원산지관리 특화시스템을 보급, 안내·컨설팅·교육 제공, 영세협력기업대상 원산지 확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FTA서비스를 통해 기업 밀집 지역인 주요 10대 산업단지에 관세사 등을 직접 파견하여 FTA활용 촉진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FTA 원산지 교육이 여전히 내용의 이해가 어렵고, 교육에서 배운 것을 원산지실무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원산지 업무수행에 도움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 및 실질적인 정보부족이 향후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14].

### 3.2.2 원산지검증 대응미비로 관세환급 위험 상존

FTA 체결이 증가할수록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데 각기 다른 FTA에 따른 규정으로 인한 복잡성이 증가하고 제3국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증가하고 있다[15]. 그러나 원산지검증은 FTA 협정관세 적용이후 계약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작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중소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한 실질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16].

따라서 FTA원산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는 훨씬 많다. 원산지 검증시 중소기업의 문제점으로는 거래상대방과의 정확한 원산지검증 자료 협조 부족, 원산지검증을 위한 입증자료의 준비 방법의 미숙, 정확한 규정 등의 미숙지, 원산지검증에 있어 객관적 입증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FTA활용 중소기업은 FTA가 확대될수록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지만 자사의 사후검증 대응역량에 대해서는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17].

### 3.2.3 FTA활용 전문인력의 실무능력 한계

FTA활용 전문인력이란 자사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품목의 세 번과 과세가격, FTA별 원산지규정, 원산지관련 증빙자료의 작성, 협정관세 적용절차와 검증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업무의 차질없는 수행능력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다[18]. 특히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등 최근 거대시장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발효로 인해 FTA활용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는 아직 양적·질적으로 모두 부족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관세사 또는 원산지관리사 등 FTA활용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FTA활용을 선도할 강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 Pool, FTA활용 현장지도 역량을 갖춘 전문가도 부족하다.

또한 현재 FTA 교육·컨설팅 등이 관세사를 중심으로 원산지 등 통관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FTA활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국 현지에 네트워크를 갖춘 대기업들에 비해 여전히 국제화 경험, 마케팅 정보, 판매 전략 등이 부족하여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품질과 기술력을 높이거나 대체시장을 개척해 FTA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 3.2.4 비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컨설팅

FTA컨설팅은 전문적인 역량과 스킬을 갖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의 조직이 FTA이행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새로운 원산지관리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 자문서비스 활동으로 정의된다[19].

원산지관리 컨설팅은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원산지관련 정보관리·증빙서류 작성·시스템 활용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원산지관리를 위한 효과적 전략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의해 분야별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FTA 수출 활용은 수출마케팅과 FTA 활용 전략의 복합 지원 수요를 선호하기 때문에 분야별 특화된 컨설팅 지원사업의 분리 운영은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지원만족

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 방식의 컨설팅으로 인해 실질적 개선 효과가 미흡하며, 컨설팅에 대한 평가·환류체계 미비 및 컨설턴트의 자발적인 노력 부족으로 컨설팅 서비스 수준 개선이 미진하고 있다.

#### 4.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방안

##### 4.1 효과적인 FTA 원산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FTA 활용률 제고의 관건은 원산지 문서관리 특히, 정확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이다.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기초자료이고 사후검증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입증자료이기 때문이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 생산업체와 수출용 원재료 공급업체가 발급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이 대부분 수출과 관련 없는 국내부품 협력업체라는 점이다. 사실 수출과 거의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에 정확한 원산지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20].

따라서 협력업체에 대해 FTA 원산지관리를 위한 품목분류, 회계관리기법, 원산지판정 기법 등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매뉴얼 제공을 통해 시스템구축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산업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집단의 관세컨설팅이 필요한데 완성품 제조업체가 그러한 전문업체·기관 등을 선정해 협력업체에서 정확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간 협업모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4.2 FTA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

최근의 FTA 사후검증 동향은 직수출업체 뿐만 아니라 주요 협력업체까지 검증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관세추징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입자들의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FTA 협정과 관련해 실질적인 원산지 판정은 대부분 수출국가에서 이루어지므로 국내의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등 형식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시 세관에서도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특혜세율적용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하는 FTA의 경우 수출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므로 차후 사후검증을 통한 관세추징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FTA 시대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FTA 활용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각 협정별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최근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원산지 검증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4.3 FTA 지원제도의 운용 내실화

지금까지의 FTA 컨설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사전심사 등에 역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의 과정은 물론, 사후 관계당국의 검증에 따른 불확실성으로부터 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리스크 관리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 선진국, 중국 등과 같은 대규모 시장의 경우 정부가 현지 컨설팅 업체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민간 부문 컨설팅사가 다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현지 컨설팅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 FTA 회원국의 경우 현지 민간 컨설팅사의 활동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해외민간네트워크의 지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21].

따라서 정부는 해외 민간 네트워크 등 현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경우 민간 컨설팅 시장기능이 취약한 아세안 등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정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의 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이 관련 기관에 신청 등을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FTA 체결 증가를 고려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중소기업의 환경에 맞게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원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 4.4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완제품 뿐 아니라 부품과 원재료들의 국제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 제품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배치하여, 원산지증명의 정확성과

원산지검증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이는 FTA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 투자하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전제조건이 된다[22].

따라서 원산지관리 담당자는 현장의 생산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원가회계의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생산공정 이해 능력, 수출품의 HS 품목분류 능력, 원가회계시스템의 이해 및 활용능력, 사후검증 대비 능력 등이 필요하다. 원산지관리 전담자 양성은 중소기업 차원에서 FTA 활용 촉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대기업 퇴직임원 등을 활용하여 통관이의 시장개척, 마케팅, 생산, 물류 등 무역 전단계의 FTA활용 종합 분석이 가능한 컨설턴트로 양성함과 아울러 이들 중소기업들이 FTA 업무 수요 발생시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아웃소싱제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 5. 결론

지난 90년대 이후 WTO가 주도하는 세계화와 국제화 그리고 FTA에 의해 확산되는 지역주의로 인해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은 수출 주력의 역할을 맡아 국민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수출을 통해 국민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낮은 수준으로 저평가되고 있다[23].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ASEAN, OECD 회원국 대부분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이제는 이러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 발급 절차 및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로 FTA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점점 넓어지는 FTA 경제영토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도 FTA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지원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디지털융복합시대를 맞이하여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라는 거대한 물결속에서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을 제고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직접 수출하는 기업 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등 내수 기업의 제품들도 FTA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FTA 원산지관리를 위한 품목분류, 회계관리기법, 원산지판정 기법 등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매뉴얼 제공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해당 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집단의 관세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간 협업모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최근 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관세추징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각 협정별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원산지 검증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의 FTA 컨설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사전심사 등에 역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의 과정은 물론, 사후 관계당국의 검증에 따른 불확실성으로부터 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리스크 관리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 컨설팅 시장기능이 취약한 아세안 등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정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FTA 체결 증가를 고려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중소기업의 환경에 맞게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원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생산공정 이해 능력, 수출품의 HS 품목 분류 능력, 원가회계시스템의 이해 및 활용능력, 사후검증 대비 능력 등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FTA 원산지관리 전담자 양성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기업 퇴직임원 등을 활용하여 통관이의 시장개척, 마케팅, 생산, 물류 등 무역 전단계의 FTA활용 종합 분석이 가능한 컨설턴트로 양성하고, 이들 중소기업들이 FTA 업무 수요 발생시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아웃소싱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한 사례연구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개별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하지 못한점에 연

구의 한계를 두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 REFERENCES

- [1] NEWSIS, 2016.2.24
- [2] Deok-Rhyool Roh, "Determinants of Spaghetti Bowl Phenomenon in the Use of Korea's FTA Preferences",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OL. 11, NO 2, pp.1-21, 2010.
- [3] In-kyo, Cheong, "Survey on the FTA Utilization and Policies for Enhancing Korean Companies' Utilization Ratio",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JIAS), Vol.13, No.3, pp.367-390, 2009.
- [4] Un-Jeong Do, Jung-Han Bae, "A Study on Application Strategies of Korea-ASEAN FTA for Export Companies in Korea-Taking successful cases involve companies of different sizes of application of FTA as Example-",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14, No.4, pp. 459-490, 2012.12.27.
- [5] Chun-Gu Park, Jang-Woo Choi,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Es' Origin Management Competency and Utilization of FTA",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ol.14, No.1, pp.73-88. 2013.2.28.
- [6] Yong-Tae Kim, Jae-Wan Chung,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of FTA Utilization by Korean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ol.14, No.2, pp.45-64. 2013.5.
- [7] Tae-In Kim, Jun-Jian Li, "An Empirical Study on the FTA Performance of FTA Awareness and Applicability",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6 No.3, pp.225-251.2014.6.27
- [8] Chang-Sook Lee, "Activation Measures on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Vol.15, No.1, pp.73-95. 2015.3.
- [9] Chang-Bum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ability of the Manager in Charge of FTA Rules of Origin and the Origin Verification Performance of Exporting SMEs", Korea Trade Review, Vol.40, No.5, pp.361-378. 2015.
- [10] Seon-Hye Gwon, Soon-Gwon Choi, "Effects of FTA-related factors and Firm-related factors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Korean Automobile component firm",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Vol.15, No.4, pp. 23-49. 2015.
- [11]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ment of 2-step measures to promote SME FTA utilization", Press Releases, p.6. 2014.5.30.
- [12]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stablishment of FTA strategy and selection of promising export items, Research Service Final Report, pp.96-106. 2014.2.
- [13] Ky-Ung Song, "FTA Preferential FTA Export Implementation Status in 1H05 through Korea Trade Statistics",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p.8. 2015.
- [14]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Using FTA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Press Releases, 2015.2.26.
- [15] Myong-Ryeol Bae, Chun-Il Park, "A Study on the Korean Companies' Evaluation of decade-long Korean FTAs and how to improve its for FTA Utilizati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16, No.5, pp.249-273. 2014.12.27.
- [16] Byoung-Kwon Choi, Byung-Mun Lee, "A Case Study on FTA Verification of Origin and Countermeasures of Korean Companies", Korea Trade Review, Vol.40, No.3, p.203. 2015.6.
- [17] Cho Jun-Young Cho, Dong-Hwan Hwan, "A Proposal for the Way of Consulting to Enhance FTA Utilization of SMEs",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Vol.12, No.3, pp.153-174. 2012.9.
- [18] Ji Park, "Status of Post-FTA Verification of FTA



- Origin and Implications”, TRADE FOCUS 2016, No.3,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p.19. 2016.3.
- [19] Young-Ho Youn, Do-Sung Na, Jin-Teak, Jung, “An empirical study for the relations between consultant’s expertise and consulting knowledge transfer : Focused on FTA consult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1, pp.119-132. 2015,
- [20] Jae-Wan Chung, “A Study on Improvement of FTA Utilization & Suggestion for Policy”, Korea Tax Research Forum, Vol.13, No.2, pp.153-174.2013.8.
- [21] Jae-Wan Chung, “A Study on Supplementary Device for Problems Arising from FTA Execution Management”,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ol.13, No.4, pp.61-78. 2012.12.28.
- [22] Chang-Bong Kim, Wan-Soo Park, “An Empirical Study of the Organization Capacity and Performance of Origin Verific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n System Capacity”, Korea Trade Review, Vol.40, No.2, p.44. 2015.4.
- [23] Ok-Dong, Lee, “A study of current export situation and SMEs’ vitalization plan suitable for Digital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1, pp.61-74. 2013.
- [24] Soon-Koog Kwon, “Legal Issues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 · US FTA and Tasks of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5, pp.21-29. 2015.5.
- [25] Soon-Koog Kwon, “Legal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 · China F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0, pp.9-17. 2015.10.
- [26] Young-Ho Youn, Do-Sung Na, Jin-Teak, Jung, “An empirical study for the relations between consultant’s expertise and consulting knowledge transfer : Focused on FTA consult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1, pp.119-132. 2015.11

한 상 옥(Han, Sang Ok)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경영학사)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중국통상학과(경영학박사)
- 2013년 2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학과 초빙객원교수
- 관심분야 : 국제통상, 무역창업과 경영

· E-Mail : happy1555@chosun.ac.kr